

남해-BASF, 질산 장기공급계약

남해화학, 2003년까지 40만톤 증설 ... 15년간 매출확대 6000억원

비료 생산기업인 남해화학이 한국BASF에 15년동안 질산을 공급하기 위해 2003년까지 질산(Nitric Acid) 40만톤 공장을 건설한다.

남해화학(회장 송선근)은 한국BASF(회장 류종열)와 질산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부터 15년간 PU(Polyurethane) 원료 제조에 필요한 질산을 전량 공급하기로 했다고 2001년 2월20일 밝혔다. 남해화학은 730억원을 투입해 여천공장 4000여평 부지에 질산 40만톤 공장을 2003년 3월말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남해화학의 질산 생산량은 국내 전체 질산 생산량 90만톤의 78%에 해당되는 70만톤으로 증가하게 된다.

남해화학은 한국BASF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로 40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으며 15년동안 6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해화학은 향후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사업을 확대하고 생명공학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했으며, 한국BASF와 질산 장기공급 계약을 맺은 것도 정밀화학 부분 확대전략의 일환이다.

2005년까지 정밀화학 부문에 4600억원을 집중 투자해 매출액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조2000억원대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밀화학 사업 확장으로 화학제품과 비료제품의 매출비율을 현재 30대70에서 60대40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한국BASF는 세계적 석유화학기업 BASF의 한국법인으로 4억달러를 투자해 전남 여수공장에 TDI(Toluene Diisocyanate) 14만톤 공장을 신설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BASF는 한화석유화학으로부터 가성소다를 조달받기로 계약하는 등 TDI 공장 가동을 위한 주요 원료 공급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1/3/12>